

#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9회, 에베소서 서론, 2부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여기는 댄 다코 박사와 그의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에베소서 소개, 2부입니다

.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사실, 이전 강의에서 이 서신의 소개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 또는 아마도 주요 요소 중 일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저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베소서를 누가 썼을까요? 그리고 저는 주장했고 학계에서 에베소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주장은 바울의 저자에 유리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울 학자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최근의 주석에서 모두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저는 그 진술에 약간의 조건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 바울 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의 증거조차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생각하는 진술을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과장입니다. 바울 학문의 아카데미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것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오래된 사본 몇 개와 아마도 우리의 가장 오래된 사본 몇 개를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에베소에 있는 문구나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에베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증거를 조사해 보면, 증거는 에베소가 항상 원래 문서의 일부였거나 아마도 원래 문서의 일부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이 본문을 다루었던 일부 초기 교부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본문을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편지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또는 어디로 보내졌는지 여전히 논쟁이 있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편지가 쓰여진 곳에 대한 모든 가설은 현대 터키의 한 작은 지리적 지역을 가리킵니다. 1세기 세계에서 그 장소는 서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뉴잉글랜드에서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에 편지를 썼다고 하거나 보스턴에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편지가 뉴잉글랜드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더 넓은 지역에 있으며,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상당히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론에서 이 수업에서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의 교회에 쓴 것으로,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 편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다루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강의를 아주 잘 기억한다면, 저는 이 편지에서 몇 가지 배경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이 강의 시리즈를 어디에서 시청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아마도 매우 놀랐거나, 왜 이 모든 종교적인 것과 이 모든 마법적인 것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풀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항상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경우입니다.

종교가 도처에 있는 세상이 된 것은 우연이었다. 사실, 이교도의 종교 활동이 문화에 통합되었다. 문화와 종교 사이에는 그런 구별이 없었다.

종교와 문화는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부 소아시아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활동했던 세상입니다. 저는 또한 당시에 만연했던 마법과 점성술을 언급했고,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가 에베소의 초기 기독교에 대한 누가의 기록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면화되었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소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에베소서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이슈, 그리고 이 배경이 어떻게 바울이 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창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읽은 마지막, 아주 아주 마지막 구절을 요약해서 누가가 에베소의 초기 기독교를 어떻게 특징지었는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불확실성이 억제되었을 때, 바울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이 쏟아졌습니다. 초기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여기,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결하고, 합당하지 않으며, 상호 작용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이라면 최소한의 상호 작용으로 특징지어지는 민족 집단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다른 것 중 하나는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누가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이요. 우리는 스게와의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이 마법의 이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름을 고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사용하여 악령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악령을 몰아낼 때 먼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에베소의 유대인 대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엑소시즘이 괜찮다고 본 마지막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글썄요, 이들은 이미 이방인의 습관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그냥 이걸로 가자, 바울이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이 마을에서 큰 이적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강하고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그라마 타라는 여섯 가지 마법의 단어에 대해 상기시켜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또 다른 강력한 마법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고, 귀신들이 나왔고, 사실 그것은 나쁜 장면이었습니다.

악마가 그들에게 달려들어 때렸고, 우리는 그들이 벌거벗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하기에 그다지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엑소시즘, 엑소시즘에 연루된 유대인 대제사장의 아이들, 실제로 악마에게 사로잡힌 악마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악마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독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된 후 사도들에게 책을 가져와 구부리게 했고, 그 텍스트에서 그들이 이 마법의

책의 가격이 매우 매우 높다고 말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또한 에베소에 마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본문으로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죠. 사도행전에서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린 배경 정보와 연결되도록 돕는 내용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도행전에 오면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무렵 길에 대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은제 신사를 만드는 은세공인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장인에게 작은 사업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슷한 직종의 일꾼들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사업으로 우리가 부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여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업이 불명예를 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녀가 아시아와 온 세상이 경배하는 그녀의 위엄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들이 28절에서 이 말을 듣고 격노하여 외쳤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함께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25,000명이 앉아 있는 극장을 보여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바울의 여행 동료인 가이오, 아리스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끌고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임을 알아차렸을 때, 약 두 시간 동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모신 아르테미스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루려고 했던 경연 대회입니다. 누가는 에베소서가 쓰여지기 6~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도시에 있는 약 250,000에서 300,000명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마을에 있는 약 2,000명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이 모든 영향력의 끊임없는 압박.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것은 시작이었지만, 숫자가 늘어나면서 압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초기 기독교의 일반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잠깐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관계. 골로새서를 볼 때,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이 비슷한 자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학자들이 이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종종 다양한 이유로 함께 다루어진다. 그들의 스타일은 신학, 언어학, 세계관과 비슷하다. 그들은 영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타일 면에서, 그들은 더 긴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제네티브 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많은 제네티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라고도 불리는 것에서, 우리는 이 편지에서 특징지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신학적 틀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 저는 심지어 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많은 단어에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규범을 다룹니다. 그들은 권세와 통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골로새서는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어조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이 구절들을 살펴볼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공부를 잠시 멈추고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면 비교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과 비교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8절까지 읽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1절과 비교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골로새서 1:24를 2장 5절과 비교합니다. 4:17과 6:9의 일부 내용을 비교하고, 특히 가정의 법규에 관해서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4장 1절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다른 것들에 대해 읽기 시작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고, 그 기도 표현들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마지막 인사 부분을 골로새서 끝 부분에 있는 내용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유사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휘에서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 대한 토론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두 가지가 40% 순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단어나 내용의 유사한 사용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지만, 동일한 단어가 꽤 다르게 사용됩니다. 유사점은 실제로 두 글자가 서로 의존하거나 한 사람이 모두 썼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 두 서신을 모두 쓴 경우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한 사람은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의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나 내용은 무엇이이었을까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그냥 골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갑자기 어떤 편지가 마을에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편지 뒤에 있는 이상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말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지의 배경과 관련된 첫 번째 사실은 이 편지가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교도 종교에서 개종한 새로운 신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성술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온갖 이교도 활동에 손을 대고 있었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그들의 믿음이 복음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대인 공동체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교회에서 소수를 형성할지라도 일부 유대인에게 전달되지만, 어쨌든 교회 내에는 그들만의 문제가 있는 유대인 소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의 기록에서 저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즉, 마을의 유대인 중 일부는 이교도 활동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가 사본을 가지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고대 마법 테스트의 문서 또는 편집본인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의 증거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중 일부가 이교도 마법 활동 중 일부를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교도적 배경에서 온 이방인과 실제로 전통적인 유대교 방식에 얽매어 기독교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느 정도 종교적 혼합주의에 관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고 강력하게 확립한 유대인 모두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종류의 보호, 인도 또는 축복을 위해 외부의 근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이 중심 요소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또한 교회에서 기독교 정체성, 연합, 그리고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특정 민족 집단의 마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몇몇 도시와 비슷한 도시에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이방인들이 있고, 주요 상업 도시야.

사실 사도행전에서 아폴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에베소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에 있고, 로마인들은 모든 종류의 활동, 정부, 그리고 고대 세계의 모든 종류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에서 앞서 이것을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모든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그런 다음 교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대해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기독교 정체성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도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는 민족적 기원이 없는 척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인종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과 인종적 다양성에서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이시고 우리 각자가 형제 자매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증진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남편이 흑인이고 아내가 백인이며 그 집에 혼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라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시장에서 그들을 볼 때, 당신은 그들이 멋진 친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이고, 아마도 스페인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독교 정체성을 특징짓는 것은 교회가 이 모든 다양성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구 세계의 일부에서 홍보되고 있는 색맹 개념 전체가 농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흑인을 볼 때 그 사람을 흑인으로 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백인을 볼 때 그 사람을 백인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 척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 정체성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더 높은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틀 안에서 교회에 도전하며, 정체성은 교회 내의 연합을 강화하는 규범과 내부적 그룹 역학과 함께 온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어떤 자질과 영적 자원이 필요한지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능력과 개인적 책임감이 신앙 공동체에서 연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부르심에 따라 살 것을 촉구한다.

사실, 그는 에베소서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심오한 진술을 합니다.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자체만이 아니라요.

그는 공동체가 특권적인 가족 환경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그 특권적인 가족 환경에 있으면 큰 명예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 명예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태도,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국 믿음의 가정에

수치심과 당혹감을 안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이 편지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잘 표현된 목적 진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이 편지의 핵심 주제를 몇 가지 보여드려서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끔은 이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 생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핵심 주제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서구 세계에 살고 있다면,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 우리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권능과 그 모든 것과 영적 활동에 대한 언급이 우리 세계의 일부인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접어두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의 세상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특히 권세와 통치자들 위에 뛰어나시다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의 권세는 그들의 영향력과 힘으로 우세할 수 있지만, 그들의 힘은 하나님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권세의 모든 영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매일 그들을 짓밟으려는 악마가 있는 것처럼 살 필요가 없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비기독교적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정복하셨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승리를 이해합니다. 그 주제는 특히 이 편지의 처음 세 장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논의에서 볼 두 번째 주제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의 충만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강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많은 부분을 가질 것입니다. 몇 분 전에 저는 민족 구성과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된 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의 은유를 사용하여 어떻게 다른 부분과 다른 차이점, 그것이 민족적, 종교적 배경, 인종적이든 무엇이든, 몸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를 잘 설명합니다.

그가 실제로 영적 은사에 대해 말할 때 , 그는 손이 손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바울의 요점을 확대하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톱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 어떤 경우에는 벽의 통증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고 있을 때, 등이 아프고 손톱이 기능하지 않으면, 벽 뒤로 가서 등을 벽에 긁습니다.

이제, 벽에 난 고통을 보면 손톱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든 ,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이 편지에서 그가 풀어낼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의 작은 가정의 주님으로 삼으라고 도전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에베소서 에 대한 토론 중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책에 제가 최근에 기고한 장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집과 하나님의 집.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 거시적 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거시적인 가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노예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거시 가정의 관계 역학은 미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마이크로 가정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러 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가족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산하고 개인 주택으로 갈 때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님으로 보세요.

이것은 대부분 가정이 자신의 신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 신은 농업 사업에서 잘하도록 돕는 농업 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분야에서 그들을 돕는 신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와인을 마시고 와인을 즐긴다면, 당신은 아마도 와인의 신인 데메테르의 작은 신사를 가지고, "알다시피, 나는 그저 제물을 따르고 축하하고 그것을 일정의 일부로 삼아 와인을 더 마시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 말은, 사람들의 집을 다스리는 신을 모시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그들의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대한 이 토론을 계속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배경 자료가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곧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소개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 부분인 클린트 아놀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린트 아놀드가 에베소서의 목적을 어떻게 신중하게 설명하는지. 제 생각에는 1~2년 전에 출판된 주석입니다.

그는 학술적 토론을 잘 골라내고, 종합하고,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고, 에베소서의 목적을 긴 문장 하나로 신중하게 정리하는 데 능숙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주변 도시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 네트워크에 이 편지를 써서 어둠의 권세와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그들을 강화하고, 그 지역 교회 내부와 교회들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큰 연합을 촉진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부르신 순수함과 거룩함에 더 잘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거나 이 말을 기억하고 나면 바로 시험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에베소서를 읽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 보세요. 숙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우리가 당신의 성경을 꺼내서 저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이 편지의 처음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바울의 인사이지만, 바울이 이러한 인사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빌레몬과 같은 다른

편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달리,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그는 자신을 죄수라고 소개하며,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apostolos*는 파견된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사명이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개념이 바울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얽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는 자신이 메신저라는 것을 교묘하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는 더 높은 권위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인사말에서 이런 종류의 직함을 어디에서 바꾸는지 관찰하고 싶다면, 그는 매우,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만 직함을 바꿉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개인 커뮤니티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케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서신을 주고받거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에 편지를 쓸 때, 그가 일하고 매우 가까웠던 교회들이나 빌레몬서에 편지를 쓸 때, 그가 그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빌레몬서에 편지를 쓸 때, 그는 그 말을 빼고, 우리는 보통 오, 바울, 죄수라고 말하는데, 그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보내진 자이지만, 또한 높은 권위를 가지고 보내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사자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언어는 아니지만, 그것은 강력한 대사와 같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나라에 가서 대사를 찾는다면, 거기에는 모든 형태의 나라에서 온 대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나 캐나다 대사, 영국 대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할 때, 오,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저처럼 아무도 아닌 사람이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상원의원이었을 때조차도,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논의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와 모든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저는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려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대통령 불가지론자가 된다면, 그가 기독교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정 국가에서 사역을 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과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사무실에 전화해서,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그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유리한 점은, 저는 이 특정 국가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몇 안 되는 흑인 중 한 명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악센트를 가진 흑인을 주변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변에 있는지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은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가서 앉아서 한 시간 동안 그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며 그를 알아가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종교적 자유를 증진하는 부탁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저는 메모를 보낼 수 있었고, 친구들을 통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에 종교적 자유를 실제로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메신저라고 하긴 하지만, 나는 권한이 있는 메신저야. 마치 내가 아주 중요한 나라의 대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함께 오는 힘은 더 강합니다. 바울이 이 칭호로 전달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리합니다. 그들은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도심 사람들. 여러분 중 일부는 도시에서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 도시의 역동성을 알죠.

바울은 이 사람들과 교감하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도이고, 하나님의 소원에 의한 사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의 의도와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가 의지에 사용한 단어는 소원이나 욕구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사도인데, 신이 그가 사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기억나? 그는 복음을 전할 자리를 얻기 위해 로비할 계획이 없었다. 그는 실업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 아니, 그는 그리스도가 길에서 그를 만났을 때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데 바빴다.

그를 말에서 내리치고 가장 강한 비난의 질문을 던지세요.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이 그의 삶이 바뀐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 소원과 욕구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의. 당신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거래를 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을 알아봅니다. 그는 성인인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콜로새서를 논의했던 걸 기억하시죠. 서론에서 성인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성인이라는 단어는 교황의 시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톨릭 교회가 누군가가 성인이 될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종교적 기준을 거쳐야 하고, 교황이 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식을 거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본문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부를 때,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사용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영어로 된 일부 번역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더 많은 성도와 충실한 사람들, 어느 정도 도덕적인 성격을 가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이지만,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성도이고 충실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표준적인 인사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가 있기를.

저는 처음에 경고했듯이 이 편지에 대해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말할 때, 그는 그가 쓴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평범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은혜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민족 공동체로 구성된 교회가 함께 일하려면, 교회에서 연합이 우세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평화, 샬롬. 하느님께서만 주시는 행복이 당신의 몫이므로, 당신은 지역 사회 역학에서 문제가 되는 내부 갈등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다시, 친족 관계 문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주님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주님, 주인,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고, 순종하는 명령에 따라.

그와 신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오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쓴 후에, 그는 실제로 제가 숨가쁘고 숨가쁘게 부르는 기도를 쓸 것입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문장을 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그리스어 텍스트에서 가장 최근의 것은 Nestle Alan 28입니다. Nestle Alan 28은 이 문장을 세 개로 나누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일부 그리스어 텍스트에서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이상한 아프리카식 악센트로 숨쉬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려고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해하시나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에 흥분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분은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심이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이라. 그의 뜻의 신비를 그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는 때가 차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시키려는 경륜이니라 .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그의 목적에 따라 예정되어 기업을 얻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두었던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시느니라. 와! 이것이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조립한 일부 그리스어 텍스트이지만, 다음 연구에서 이 문장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특정 문장의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친족 관계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처음 몇 구절에서 3~5절만 살펴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아버지라는 가족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입양된 신자라는 단어인 *euthysia* 를 소개합니다 . 그것은 제 생각에 영어 번역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일부 영어 번역가들은 *san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니요, 그 단어는 *sans*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sans*로 채택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가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게요.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즉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화의 과정에서 그것을 끼워넣어, 형제 자매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앓을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공동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교회의 보호를 보장하고 보장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버지이고, 당신이 집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장 강도가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절대 잠들지 않고, 졸지도 않는 사람. 말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 그냥 가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거나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 당신은 불안함을 느낄까요? 바울은 거기서 강력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고 당신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 있고 당신이 거기에 있다면, 오, 저는 그가 다른 곳에 넣은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이 몇 구절에 대한 개요를 주목하세요. 1장 3절에서 14절은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어떤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본문에 선택되어 소개된 유대인의 축복의 일종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특정 글의 신학과 스타일이 바울이 편지에서 문제를 쓰고 논의하는 방식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 주석가들은 이것이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무시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축복은 구약성경의 풍부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시편과 다른 것들을 다룰 때, 고대 히브리인 경건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3절을 읽을 때, 이 문화에서 태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유대인 바울이 이 문화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성경으로 가보죠.

신약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축복이나 찬양의 언어를 좀 얻으세요. 시편 72편 18~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세. 그분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세.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아멘, 아멘. 에베소서 1:3에서 발견되는 그런 종류의 언어는,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어 감각.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흥미로운 점은 일부 이교도들조차도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전통적으로 바라카라고 불리는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신을 찬양하고 신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이방인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3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왕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의 몸을 바쳐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대기하에서도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봅니다. 그러자 티레 왕 히람 이 솔로몬을 대하는 면에서 솔로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히람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 왕에게 지혜롭고 분별력과 이해력이 있는 아들을 주시고, 주를 위해 성전을 짓고 자신을 위해 왕궁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전통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전통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건함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성경 본문에서 보는 방식으로 표면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인과 그리스인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큼니다. 구약성경, 특히 역대기에서 보여드린 구약성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솔로몬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이 왕들 중 일부는 사업에 정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말을 하고, 솔로몬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들에게 사업을 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이 잘 풀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덧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일단 제쳐두고, 이 구절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긴 문장의 서론적 요소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다음 강의 시리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이 구절들을 골라서 읽기 시작하면, 문장의 흐름에 대한 더 쉬운 읽기 방법이 제가 줄 개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요를 준 후에 제가 할 일은 이 복잡한 문장을 골라서 이 문장에서 표면화되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보여드려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함께 추론하고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요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입양하셨고, 그는 그 줄에서 언급하실 것입니다.

그의 구원과 계시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유업과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에게 감사하는데, 그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산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에 소망을 두었을 때,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현재와 미래가 있기를. 이 텍스트를 볼 때 이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테스트의 일부 요소를 풀어보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 특정 세션을 마칠 수 있을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에스더에서 정말 좋아하는 이 특정 구절의 두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셨느니라.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을 때에, 그는 그의 뜻의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을 위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마 이 연구 시리즈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깊이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어 사랑받고 보호받고 좋은 상속을 기다리는 상속자가 되어 더욱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공부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세션 19, 에베소서 소개, 2부입니다.